

보도시점 2026. 9. 8.(화) 15:00 배포 2026. 9. 8.(화) 13:30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면담 결과

- 내년 예산안 관련,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 올해 한국 성공적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성과를 공유
-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 설명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8(화) 마리아 리(Maria Lee)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대외협력 총괄 담당과의 면담을 통해 내년도 우리 예산안과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 참석자: (재경부)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기획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문 관리관과 박 심의관은 내년도 우리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AI 등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하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추가세수를 단순히 소비성 지출이 아닌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고,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전체 재원 중 12.5조원(8%)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등 미래 부채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무디스 측은 내년도 우리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의 균형을 모색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무디스 측은 올해 우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성공적인 발행\*을 축하하며, 이번 외평채 발행 성과와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을 표하였다. 이에 문 관리관은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서도 추가 프리미엄 없이 유로화 외평채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기구 등 우량 투자자가 대거 참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정부는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하며 신규 투자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한국물의 외화조달 벤치마크 금리로서 외평채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년 달러화 30억불, 유로화 17억유로 발행

\*\* 종전 최저치인 '25년 기록(3년 +25bp, 7년 +52bp)을 각각 15bp, 24bp 하회

마지막으로, 무디스 측은 최근 한국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문 관리관은 RFI 제도개선 등 외환시장 개혁 추진과,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보유·거래·조달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재정경제부<br>국제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황희정 (044-215-4710)     |
|               |                | 담당자 | 사무관 | 원종혁 (gur2794@korea.kr) |
| 담당 부서         | 기획예산처<br>예산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정애 (044-214-2130)     |
|               |                | 담당자 | 서기관 | 하치승 (hcs017@korea.kr)  |

